주간 규제 정보

Vol. 281

2020. 02. 03 ~ 2020. 02. 09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3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2. 데이터 위변조 막는 '스마트 해썹' 적용업체 우대조치! ····· 3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3. 브라질 체외진단(IVD) 시장동향 및 진출 방안 ····· 4
4. 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7
5. 2020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 13
6. 2020 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16
7. 2020년 베트남 통상정책 및 전망 ····· 20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전기요, 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한 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mfds.go.kr)

2. 데이터 위변조 막는'스마트 해썹'적용업체 우대조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하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와 표시·광고에 있어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개정안을 2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 해썹(HACCP):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

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입니다.

○ 참고로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는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HACCP 구축비용 지원 : 업소당 최대 1억 원(소요비용의 50%)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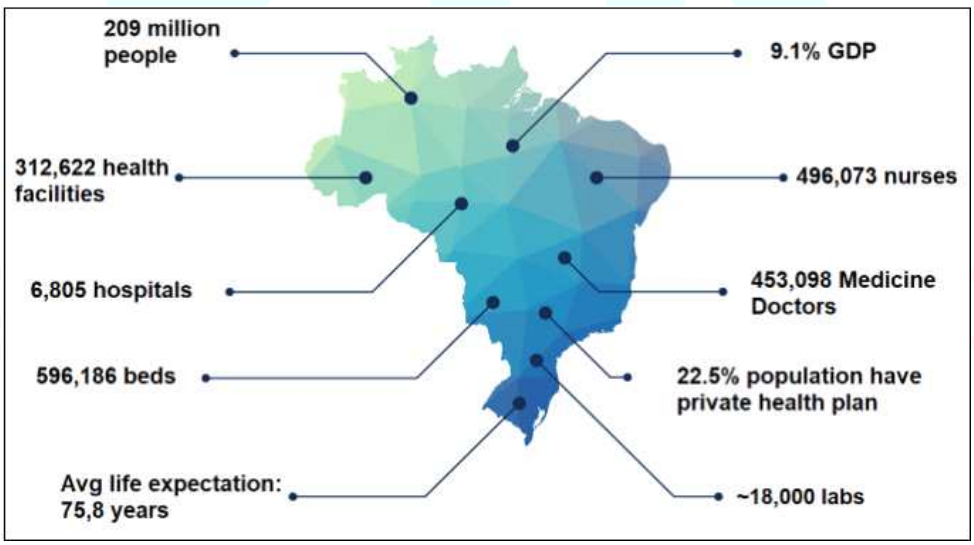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3. 브라질 체외진단(IVD) 시장동향 및 진출 방안

브라질 보건 시장은 세계 8위 규모로 이중 체외진단(IVD - In Vitro Diagnostics) 시장은 약 17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약 2억9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에는 약 6800개의 병원과 1만 8000개의 질병검사센터가 있다.

브라질 보건시장(2019년 11월 기준)



자료: www.hospitalar.com

브라질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각종 식품 및 건강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평균 수명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현재 브라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5.8세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30년에는 브라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종양, 당뇨병, 퇴행성 신경 질환 등 중 장년 및 노년 인구가 흔히 걸릴 수 있는 각종 질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 같이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브라질은 외국 기업, 특히 의료 기기 및 체외 진단(IVD) 장비 업체에 있어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다.

위생감시국(ANVISA)

위생감시국(ANVISA-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은 국가의 보건 위생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보건부 소속이다.

ANVISA의 업무는 5가지 주요 분야로 구분되며, 이와 관련된 근거 법령은 아래와 같다.
1. 식품 및 식품 보조제(RDC 275/2002)
2. 화장품 및 미용 제품 (샴푸, 컨디셔너, 바디 로션, 향수 등)(RDC 07/2015 및 RDC 48/2013.)
3. 의약품-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GMP)(RDC 17/2010)
4. 살균제(세제, 소독제 등)(RDC 47/2013)
5. 의료 장비(일반 의료 및 치과 및 진단용 장비, 병원용 제품 및 장비 등)(RDC 16/2013)

ANVISA는 브라질의 위생 감시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 소속 기관으로 주 정부 및 시 정부가 제정한 규제 조치를 관리하고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정부는 해당 영역 내의 규제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다른 영역의 정부로부터 규제 받지 않는다.

ANVISA는 위생 감시가 필요한 제품의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제품을 관리한다. 또한 AFE(ANVISA가 발급한 영업 허가)를 취득한 제조 업체, 유통 업체, 수입 업체 및 운송 업체를 관리한다. 즉 AFE를 보유한 회사만이 위생관리대상 제품을 생산, 유통, 수입, 운송할 수 있다. 또한 ANVISA 등록을 정식 취득한 제품만이 브라질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다.

주 및 시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생감시국은 'VISA'라는 약어로 표시되며, 위생 및 건강 관련 문제를 관리·감독한다. 'VISA'들은 위생 감시가 필요한 품목의 GMP를 포함한 제조과정, 보관 및 운송 등을 관리한다.

브라질 시장 진출 방안

브라질 위생 규제에 대한 개요를 이해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1) 수입 업체·유통 업체와의 파트너십
2) 수입업체·유통업체·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
3) 위의 두 가지 유형의 회사 중 하나를 인수
4) 수입·유통 업체 또는 수입·유통·제조업체를 자체적으로 설립
5) ANVISA 등록 취득이 가능한 Holder업체(수입·유통업체 또는 수입·유통·제조업체)를 이용
   · Holder. 업체는 영업허가(AFE), 수입 면허, 생산 인프라 보유

ANVISA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업체만 제품을 등록, 수입, 유통 및 제조 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 유통 및 제조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 사무소는 ANVISA 등록의 소유주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외국 업체가 1번 진출 방안 또는 2번 진출 방안을 선택하는 경우 브라질 현지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제품 판매가 예상대로 되지 않거나 브라질 현지 파트너가 제품을 더 이상 취급하려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ANVISA 등록은 현지 파트너 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 회사는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해 등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3번 진출 방안은 인수하려는 회사가 이미 ANVISA 등록(시설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 인수를 위한 재정적 투자 외에도 인수 대상 업체의 이력 및 브랜드 가치 등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4번 진출 방안은 외국 회사에 브라질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 성과를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5번 진출 방안은 브라질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외국 회사는 Holder 업체가 보유한 영업 허가 및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제품 등록 소유권은 브라질 업체가 가지게 된다. 그러나 Holder 업체들은 회사 정책 상 외국 기업과 경쟁하지 않으며, 갑자기 제품 취급을 중단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 같은 Holder 업체를 통해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다수의 유통 업체를 동시에 보유할 수 있으며, 판매 실적이 부진한 업체와는 즉각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older 업체를 통한 진출 비용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시장에 대한 접근도 훨씬 빠르다.

Holder 업체는 반드시 무역 경험이 많은 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편이 좋다. 왜냐하면 무역을 처음 시작하는 업체는 수입량 한도가 낮고 한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반면, 무역 경험이 많은 업체의 경우는 수입량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외진단 제품의 등급 분류

체외진단(IVD - In Vitro Diagnostics) 제품은 4등급으로 분류된다. 등급1과 등급2 제품은 ANVISA에 의해 인체에 대한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제품으로 분류되며 브라질 수입업자, 유통업체 또는 제조 회사는 OEM 또는 고유 브랜드로 직접 제품을 등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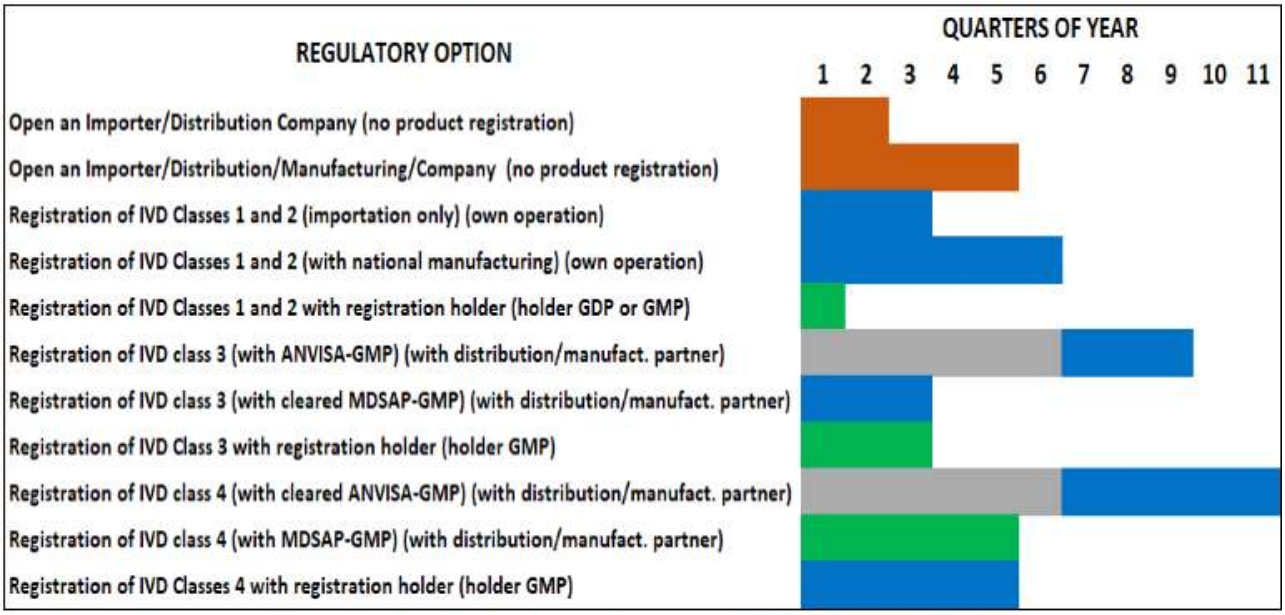
등급3과 등급4는 ANVISA에 의해 인체에 대한 위험도가 중간 수준과 높은 제품으로 각각 분류된다. 특히 등급4의 제품과 등급3의 일부 제품(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치쿤군야 관련 제품)의 경우에 브라질 공공제약 연구소 FIOCRUZ 소속 국가건강품질관리 연구소(INCQS-Instituto Nacional de Controle de Qualidade em Saúde)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등급 3과 등급 4에 해당하는 제품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을 갖췄을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1) 외국 회사가 이미 ANVISA를 통해 GMP를 받은 경우(GMP에는 1~2년이 소요되며, 브라질 파트너에게 약 2만 달러 상당의 GMP비용을 지불해야 함. 파트너가 추가되는 경우에 비용도 추가됨.)
2) 외국 회사가 이미 MDSAP를 통해 GMP를 받은 경우(브라질 파트너에게 약 2만 달러 상당의 GMP비용을 지불해야 함. 파트너가 추가되는 경우에 비용도 추가됨.)
3) 외국 회사가 중요한 생산 과정의 일부를 브라질 파트너에게 이전하는 경우(GMP가 면제되며, 국산 제품으로 등록됨. 그러나 반드시 브라질 국내에서 파일럿 로트를 생산하고 품질 테스트를 거쳐야 등록이 가능함.)

아래는 브라질 시장 진출 방법에 따른 예상 소요 기간이다. 소요 기간은 대략적인 추정치이며, 해당 정부 기관의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브라질 체외진단(IVD) 시장 진출 방법에 따른 예상 소요 기간



자료: ENZYTEC BIOTECNOLOGIA 자체 분석

자료: 연방간호학위원회(Cofen), 중앙은행 Focus보고서, 의료보험공사(ANS), 국립 지리 통계원 (IBGE), 국가의료시설 등록(CNES), 브라질병원연맹(FBH) 등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자료 종합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4. 태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 상표권자/대리인, 번거롭더라도 지식재산청 및 관세청 모두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을 것 -
- 태국법 상 병행수입은 불법이 아니므로 모조품 아닌한 정부 단속 범위 밖 -

□ 관세청 지재권 단속반 초청 세미나 개요

○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는 2020년 1월 23일(목) 방콕무역관 직원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태국 관세청 지식재산권 단속반 실무자를 초청하여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태국 지식재산보호 환경 및 세관의 역할, 지재권 침해 시 단속 및 대응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IP 전담직원 및 무역관 직원들이 진출기업의 지재권 확보 및 침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세미나 소개

구분	내용
행사명	KOTRA 방콕무역관 태국 IP 교육 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23일(목), 오전 10시~오후 4시 30분, KOTRA 방콕무역관 대회의실
주최	KOTRA 방콕무역관 IP Desk
연사	태국 관세청 Mr. Kansakol Indrasawat, Rattanasak Rattanalapo
프로그램	ㅇ 10:00~12:00 지식재산권 개요 ㅇ 13:30~14:30 태국 관세청 소개 ㅇ 14:45~15:45 태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단속 ㅇ 15:45~16:20 질의응답

태국 관세청 사무관 초청 세미나 진행 모습



자료: KOTRA 방콕무역관 직접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 (태국 관세청 소개) 태국 관세청은 7개의 사무소와 4개 지역(중부, 남부, 북부, 북동부)에 48개의 세관을 두고 있음.

- 태국 관세청은 2017년 개정된 관세법, 형사소송법, 수출입법을 비롯하여 약 100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마약, 보호대상 야생 동식물(CITES 관련), 대량살상무기, 불상 등 종교·문화적 물품, 모조품 등임.

태국 관세청 관할 구역 소개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식재산권 종류 및 관련 법령)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뉘며 세부적 상표권, 특허, 영업비밀, 지리적표시, 집적회로 설계 및 디자인, 그리고 저작권이 관련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주요 지식재산권(IP) 보호 현황

구분	종류	보호대상	권리발생	보호기간	유관 법령
산업재산권	특허권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발명: 20년 - 실용신안: 6년(2년씩 2회 연장가능) - 디자인: 10년	특허법(1979년 제정, 1992년, 1999년 개정)
	상표권	상표	등록	- 10년 (10년 단위로 갱신가능)	상표법(1991년 제정, 2000년, 2016년 개정)
	영업비밀	영업비밀	등록불요	- 비밀관리기간	영업비밀보호법 (2002년 제정, 2015년 개정)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등록	- 기한 없음	지리적표시보호법(2003년 제정)
	집적회로 배치설계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	- 10년(단, 배치설계 창작일로부터 15년 초과 불가)	집적회로 배치설계법(2000년 제정)
저작권	저작권	저작물	창작과 동시에 발생	- 저작자의 일생+사후 50년 (저작자, 저작물에 따라 상이)	저작권법 (1994년 제정, 2015년 2회, 2018년 개정)

* 변종식물 등 본 세미나의 논의 대상이 아닌 지재권은 불포함

자료: 연사 발표자료, 태국 지식재산청(DIP)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 (지재권 관련 유관 부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등록 절차는 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수행

- 단, 지재권 침해 발생 시 사안의 종류 및 경중에 따라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에서 대응이 가능

태국 내 지재권 등록 및 보호 기관

창작 및 발명	보호 등록	침해 발생 시 권리 행사
		
창작자/대리인	지식재산청(DIP)	왕립태국경찰, 특별수사국(DSI), 세관, 대검찰청, 지식재산상거래법원, 방송통신위원회(NBTC), 디지털경제사회부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재권 침해 단속 집행) 수출입지점에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태국 세관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태국 내에서 발생 시에는 경찰 또는 특별수사국(DSI)에서 단속 절차 진행 가능

상황별 지재권 침해 단속 집행

구분	주무 기관	협력 기관
수출입지점	세관	경찰
국내	경찰/특별수사국(DSI)	세관
침해물품 제조/보관	경찰	세관
(기타) 지재권 보호 인식제고	지식재산청(DIP)	세관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재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오프라인 상 지재권 침해 발생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대응을 시작할 수 있고, 온라인 상 침해인 경우 경찰에 고소하거나 지식재산청(DIP)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출입지점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으로 단속이 가능하고, 별도의 등록이 불필요한 저작권 침해 발생 시에는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을 할 수 있음.

지재권 침해 유형별 대응 방안

구분	대응방안
온라인 침해	경찰에 고소 또는 지식재산청(DIP)에 청원서 제출 → 디지털경제사회부 → 지식재산상거래법원 →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콘텐츠 차단 또는 삭제
오프라인 침해	경찰에 고소
수출입지점 침해(예방)	(상표권) 지식재산청을 통한 세관 상표권 등록 (저작권) 세관에 침해 의심 제품 압류 요청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절차 안내**

○ (상표권 세관 등록의 필요성) 태국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의 대부분이 수입 물품이라는 점, 해외 등록 상표일지라도 '상표권 세관 등록'시 수출입지점에서의 침해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표권 세관 등록'의 실익이 있음.

- 또한 상표권 침해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 또는 선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할 경우 단속 성공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억류했다가 추후 무혐의 처리가 될 경우 상표권자 또는 대리인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함.

○ (상표권 세관 등록 방법) 상표권의 세관 등록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내방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외국소재 기업은 직접 등록이 불가능한 관계로 태국 내 현지법인을 통하거나 현지 로펌 또는 현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등록해야 함.

- 신청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대체로 로펌 대행 수수료가 건당 약 500달러가 발생하고 등록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됨.
- 등록이 완료되면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thaiipr.com)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가능

상표권 세관 등록 정보

담당기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청(DIP)
주소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563 Nonthaburi 1 Rd, Bangkrasor, Nonthaburi 11000, Thailand
전화번호	+66-2-547-5024
수수료	무료
소요기간	약 20일(영업일 기준)
유효기간	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
필요서류	- 세관상표권 등재 신청서 1부 및 상표 세부내용 1부 - 상표등록증 또는 권리등록원부 사본*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원본* - 사업자등록증* - 영문 브로슈어, 해당 상표가 사용된 제품 샘플(해당시) -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 * 권리자가 해외에 거주시, 해외에서 발행한 서류 일체 사실 공증 및 영사 인증 필요
등록 절차	DIP에 지재권 세관 등재 신청 → DIP의 서류 검토 → 세관에 신청서 전달 → 세관 IPR센터 데이터베이스 등록(thaiipr.com에서 확인가능)

자료: 태국 지식재산청(DIP)

태국 세관의 IPR센터 DB 홈페이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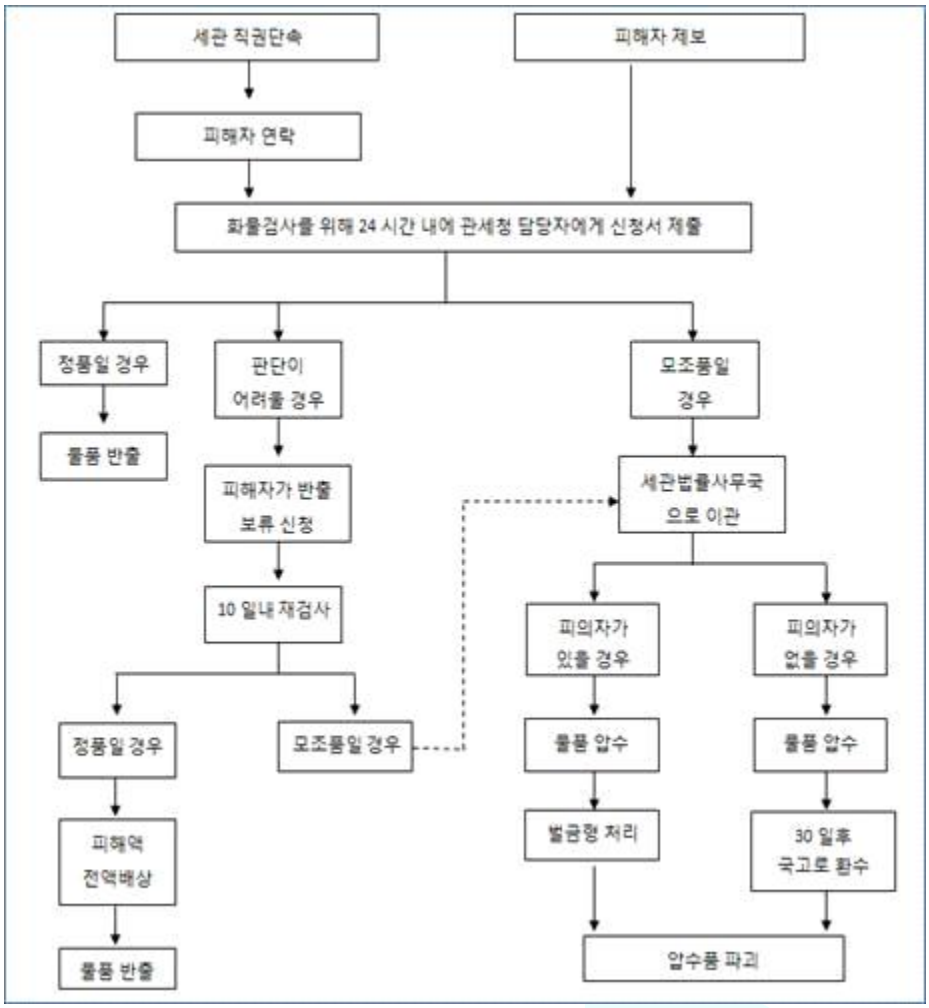


자료: 연사 발표자료

○ (수출입지점에서 세관의 지재권 보호) 세관은 상표권 침해가 추정되는 물품 발견 시 24시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화물검사 신청서 작성 후 모조품 식별을 진행하도록 함.

- 식별 결과 정품으로 판명이 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화물을 억류함으로써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며, 모조품일 경우 압수 조치 및 피의자(수입상)에게 화물규모(정품시가 기준)에 따라 벌금형 선고
- 세관 담당자는 상표권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의 경우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아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압수 및 파괴조치로 종결된다고 전함.
- 또한 세관에 상표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침해제품 수입상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권리자가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검사 신청서(Kor. Sor. Kor. 18/1)를 세관으로 제출시 권리자 제보에 기반한 화물검사도 가능

세관의 지재권 보호/단속 절차



자료: 태국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방콕무역관 IP데스크 작성

□ **시사점**

○ 이번 세미나는 태국 관세청의 역할, 지식재산권 및 침해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한국 기업들의 질문이 많은 병행 수입 문제와 관련, 태국법상 병행수입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물품이 유사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경우 위법성이 없으므로 세관에서는 이를 적법하게 통과시키고 있음.

○ 이번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관련 조언 사항으로 해외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어떠한 등록이 필요한지 살핀 뒤, 제품 주기(Product cycle) 초기 단계부터 상표권 등을 등록하여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 화장품 등 유행이 신속하게 번지고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소비재의 경우 지식재산청(DIP)을 통한 상표권 등록 및 이의 세관등록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모조품 이슈, 상표권 무단 선등록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상표권 침해 발생시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태국 내 현지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을 사용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음.
- 아울러 '모조품 사용금지 캠페인' 또는 모조품 식별법 안내 등 기업 차원에서도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장함.

- 끝으로 상표권의 세관 등록이 이루어지면 www.thaiipr.com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장 이전, 연락처 변경 등 수정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통보할 것을 당부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방콕무역관 IP-Desk 엄현주
자료: 연사 발표자료, 지식재산청(DIP) 홈페이지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5. 2020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현황과 전망

말레이시아 화장품 산업은 매년 30%씩 성장하는 소비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뷰티 편집숍 세포라(SEPHORA)가 세계에서 제일 큰 세포라 매장을 쿠알라룸푸르 중심지 Bukit Bintang 지역에 개점했다.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낮은 화장품 수입관세(한국산 제품의 경우 관세 0%), 비교적 간단한 화장품 등록 절차, 동남아시아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유일한 국민소득 1만 달러 국가 등의 이유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와 트렌디한 화장품 브랜드들이 앞다퉈 쇼핑몰에 브랜드 숍을 열거나 Watson, Play Up Store와 같은 화장품 편집숍을 통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고 있다.

네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 말레이시아 화장품 트렌드 및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자.

1. 할랄 화장품

말레이시아 대표 할랄인증 'JAKIM'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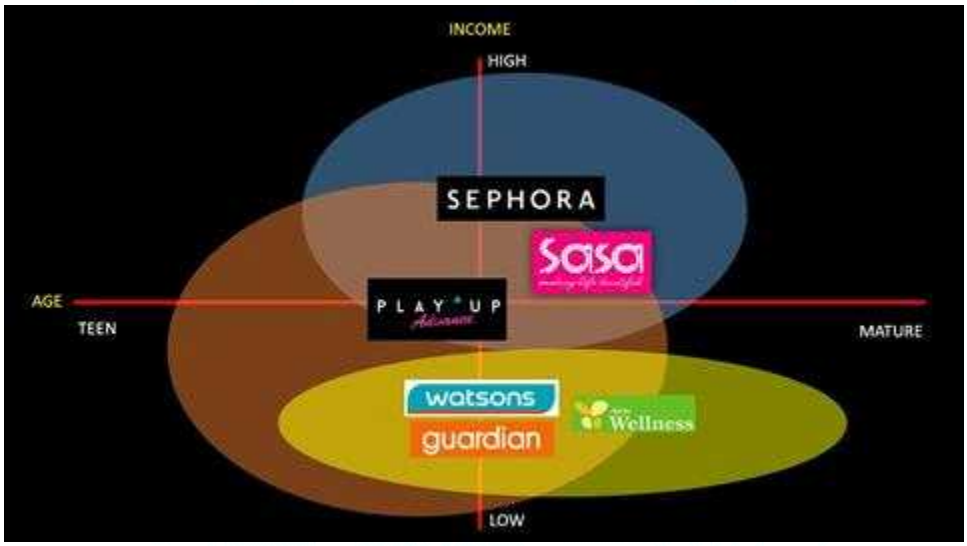
출처: HDC 홈페이지

말레이시아의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최근 무슬림들의 화장품에 관한 관심과 구매력이 향상하고 있음에 따라 무슬림을 겨냥한 할랄 화장품 시장이 매년 15%씩 성장하고 있다. 같은 문화권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

국, 일본, 유럽, 미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할랄 인증을 받은 화장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재 시장 중 식품만이 할랄 인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지만 추세를 보고 있자면 향후 몇 년 안에 무슬림에게 화장품을 팔고자 한다면 할랄 인증은 선택 아닌 필수이다.

2. 오프라인 vs 온라인

말레이시아 화장품 편집숍 시장 점유 현황



세계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섰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여전히 오프라인 화장품 매장의 매출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아직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하는 소비에 익숙하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화장품 1위 쇼핑몰 HERMO도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자 Watsons와 비교했을 때 화장품 매출은 1/10도 되지 않는다. 글로벌 추세에 맞게 말레이시아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현재 오프라인 화장품 편집숍이 화장품 전체 매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겸비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Parkson그룹도 말레이시아 온라인화에 대비해 올해는 온라인 시장에 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 Derma, Anti-Acne 제품

대표적인 Derma 화장품 VICHY



출처: VICHY 홈페이지

2019년도에는 특히 Derma(의학 화장품), 여드름 화장품들이 강세를 이루었다. Pakrson 그룹에서 운영하는 Play Up Store 매출 기록을 살펴보면 Derma 화장품을 대표하는 VICHY, LA ROCHE-POSAY, URIAGE 등의 성장이 돋보였다. 최근 Watsons, Guardian 등 대부분의 화장품 편집숍들이 Derma 제품

영역을 늘리는 등 Derma 제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2020년에도 Derma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4. K-Beauty

Play Up Store 한국 브랜드 더샘, 코스알엑스 사진



한류의 힘은 무한하지 않다. 최근 말레이시아에선 K-beauty 마케팅이 눈에 띄게 줄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Made in Korea, K-beauty 등을 앞세워 각 화장품 편집매장들이 재미를 보았지만, 최근에는 저품질의 한국 제품들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무분별한 K-beauty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긴 힘들어졌다.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인들이 많아지고 SNS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에서 소위 '핫'한 제품들을 픽업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한국 시장을 패스하고 해외 시장만 공략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다. 최근 현명한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핫한지가 중요한 구매요소가 되었다. 한국 브랜드인 코스알엑스, 더샘과 같은 브랜드는 정확한 아이덴티티와 다양한 현지 마케팅 그리고 유럽 제품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퀄리티의 화장품으로 말레이시아 베스트 셀링 아이템이 되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국 기업들에 하고 싶은 말은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며, 확실한 아이덴티티와 마케팅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 시장은 여전히 좋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갈증이 있다. 말레이시아 화장품 시장을 두드리기 전에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아직은 가격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한화 3만원이 넘는 제품은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매력이 떨어진다.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시 바로 대형 쇼핑몰에 단독 매장을 내는 것보다는 마진이 많지 않더라도 화장품 전문 편집숍을 통해 시장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한국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말레이시아 시장은 중동,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진출에 좋은 교두보가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6. 태국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현황

- 태국 정부, 2018~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 실행 -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단계적 규제 시작 -
- 2020년 1월 1일부터 주요 소매 업계, 자발적 비닐봉투 배포 중단 -
-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폐 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 추진 -

□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

○ 태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1.13kg, 연간 총 쓰레기 배출량은 27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플라스틱 컵과 빨대 사용으로 인한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172만 톤, 비닐봉투가 117만 톤, 식품 포장용기로 사용되는 폴리스티렌은 약 70만 톤이 버려지고 있음.

○ 태국 천연자원환경부(이하 환경부) 산하 오염통제국(PCD: Pollution Control Department)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태국 내 플라스틱 비드 소비량은 528만 톤에 달했음.

- 이 중 포장(패키징)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233만 톤으로 가장 사용비중이 높았으며, 233만 톤 중 193만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고 버려진 쓰레기 중 약 20%에 해당하는 39만 톤 만이 재활용된 것으로 집계

○ 그린피스(Greenpeace)에 따르면 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 심한 국가로 나타남. 태국 해양자원국 통계에 의하면 비닐봉투가 해양 쓰레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위가 빨대, 3위가 병뚜껑으로 밝혀짐.

- 최근 죽은 고래, 바다 거북과 아기 듀공의 배 속에서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다량 검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함.

해양오염으로 죽은 바다 생물



자료: 방콕포스트(2018.6.11., 2019년 8월 18일 보도)

○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는 쓰레기 분리수거 미실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부재, 매년 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소비재 사용 증가 등에서 기인

□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로드맵 수립

○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1회용 플라스틱 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려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이룩하고자 함.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

(단위: %)

내용	제 1단계		제 2단계			제 3단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2030
1. 특정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소 또는 금지 및 환경 친화적 패키징으로 대체											
1.1) 병 뚜껑 씰	80	100									
1.2)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100									
1.3) 마이크로비드		100									
1.4) 36μ 이하 비닐봉투		25	50	75	100						
1.5) 스티로폼 식품 용기		25	50	75	100						
1.6) 1회용 플라스틱 컵		25	50	75	100						
1.7) 플라스틱 빨대*		25	50	75	100						
2.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재활용 플라스틱	22	25	30	40	50	60	70	80	90	100	

주*: 노인, 환자, 유아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요한 특정 계층은 예외 허용

자료: 태국 오염통제국(PCD)

1. 플라스틱 규제 1단계(2018~2019년)

○ (플라스틱 병뚜껑 씰) 태국 환경부에 따르면 태국 내 연간 플라스틱 병뚜껑 씰 소비량은 26억 개로 약 520톤이 소비됐고 제품 특성상 수거가 어려워 재활용이 어려움.

- 이에 PCD는 2018년 2월 태국 내 주요 생수 병 제조업체들과 태국 산업연합 및 협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태국 내 주요생수 제조업체 5개*는 2018년 4월 1일부로 병뚜껑 씰 사용을 중단함.

주*: Bunrod Trading(Singha 브랜드), Sermsuk PCL(Crystal 브랜드), Thai Drink(Chang 브랜드), Nestle Thailand(Nestle Pure Life 브랜드), Carabao Group(Carabao 브랜드)

- 플라스틱 병뚜껑 씰 사용 금지는 자율 규제이나 쓰레기를 줄이려는 소비자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조업체 모두에게 환영 받는 규제에 해당
- PCD 사무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 플라스틱 씰은 현재 시장에서 거의 사라진 상황임.

○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해 시 환경오염을 유발해 태국 정부에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나 규제의 복잡도가 높은 제품에 해당

- 이에 태국 정부는 현재 규제 방안에 대한 조사 중이며, 명확한 규제 시한 또는 입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PCD 사무관 인터뷰)

○ (미세 플라스틱) 태국 공중보건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Microbeads Plastic)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의 시장 유통기한을 2020년 6월 28일로 설정

- 공중보건부는 규제 대상인 미세 플라스틱을 입자가 5mm 이하인 고체형 합성 플라스틱으로 용해가 불가하고 생분해되지 않으며, 씻어내는(rinse-off) 타입의 세정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

- 통상 미세 플라스틱은 페이셜 스크럽, 바디 스크럽, 액상형 비누, 손톱관리, 클렌저, 치약 등에 흔히 사용됨.
- 태국 온라인 일간지 포지셔닝의 태국 식약청 부청장과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태국의 주요 유통상 등은 이미 대부분의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을 회수(recall)한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은 천연 스크럽

등 대체재를 찾고 있는 상황임.

2. 플라스틱 규제 2단계(2020~2022년)

○ (비닐봉투) 두께가 35마이크론 미만인 비닐봉투의 사용은 단계적 사용 감소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예정임.
- 비닐봉투 사용 규제 관련 2018년과 2019년은 과도기에 해당했으나 태국의 CP ALL(7-11 운영), Central 그룹(태국 최대 백화점 운영)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자체 캠페인을 통해 비닐봉투 배포를 자제해왔음.
- 태국 환경부는 1차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0억 장의 비닐봉투(약 5765톤에 해당)가 절약됐다고 발표

○ 태국 내 75개 주요 소매상에서 운영하는 전국 2만 5000개의 상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배포를 전면 중단했음.
- 태국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450억 장의 비닐봉투 사용이 줄어 22만 5000톤의 소각 또는 매립이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3억4000만 밧(1098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일부 유통업체들은 비닐봉투 대신 상자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가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약 15밧(0.5달러) 정도의 저렴한 비용에 판매하고 있음.
- 플라스틱 규제가 시작되면서 태국 내 주요 백화점 등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배포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분리수거대, 재활용 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기기 등을 비치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음.

태국 유명 백화점 쓰레기봉투 배포 중단 안내(좌), 재활용 기기 비치(중), 캠페인(우)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촬영(좌, 중), 센트럴 그룹 홈페이지(우)

○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컵, 빨대, 스티로폼 식품 용기의 사용 감축을 위해 서비스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에서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종이 재질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식기 제공, 고객이 포장 시 본인의 용기를 가져올 경우 적립 포인트 추가 지급,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회용 식기를 지급하는 등 자발적으로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동참하기도 함.

□ 플라스틱 규제에 따른 기회와 위기

○ (기회) 태국 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기조에 발맞춰 재활용 생산 라인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라인 확대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태국 최대 정유회사 PTT 그룹 산하 PTT 글로벌 화학(PTTGC: Global Chemical)는 2019년 7월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업 네이처 웍스(NatureWorks)와 파트너십을 통해 연간 2만 톤의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관련 논의를 시작
- PTTGC는 또한 2019년 9월 오스트리아 기반 재활용업체 알파(Alpha)와 20억 밧(6458만 달러)을 공동 투자해 라용주에 연산 4만 톤 규모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설립하기로 함.

○ (기회) 프랑스와 네덜란드 합작 기업 Total Corbion Pla(Thailand) Co., Ltd는 2019년 9월 라용주에 연산 7만 5000톤 규모의 폴리유산(PLA: Poly Lactic Acid) 제조 공장 가동을 시작
- 이 제조시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PLA 설비에 해당하며, PLA는 태국산 사탕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물 기반 바이오 플라스틱 폴리머에 해당해 순환 경제에 일조할 예정임.

○ (위기) 급작스러운 플라스틱 규제 시행은 일부 소비자들과 중소 규모의 비닐봉투 제조사들의 불만과 걱정을 야기함.
- 비닐봉투 제조 업체들은 분해성 플라스틱 제조 원가는 일반 플라스틱 대비 2~3배 높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단기간에 신규 설비투자 및 생산 라인 변경을 하기 어렵고 기존 제품 생산 중단으로 인한 실업자 발생, 기존 플라스틱 재고 처리 문제 등 업계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Thai PBS)
- 태국 플라스틱협회에 따르면 태국 내 약 500개의 플라스틱 제조 업체에 약 8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제조 및 사용 감소로 인한 업계 손실규모가 약 300억 밧(9억6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Ch.7, 방콕포스트)

□ 폐 플라스틱 수입현황 및 관련 규제

○ 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HS 3915) 수입량은 2018년 기준 전년대비 262% 증가한 55만 3000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019년에는 41.6% 감소한 32만 3000톤을 기록
- 태국의 폐 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은 일본으로 2019년 전체 수입 물량의 32.4%가 일본에서 유입됐으며, 이어서 홍콩(27.1%), 미국(17.8%)의 순임.
- 태국의 대중국 폐 플라스틱 수입량은 약 2만 톤으로 5위, 대한국 수입은 약 1만 톤으로 12위를 차지

태국 폐 플라스틱(HS 3915) 수입 현황(2017~2019년)
(단위: 톤, %)

순위	국가명	수량			비중			증감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19/18
전 세계		152,694	552,912	322,959	100.0	100.0	100.0	-41.6
1	일본	46,635	188,344	104,489	30.5	34.1	32.4	-44.5
2	홍콩	17,913	129,094	87,422	11.7	23.4	27.1	-32.3
3	미국	20,681	99,921	57,486	13.5	18.1	17.8	-42.5
4	스페인	4,327	7,648	18,269	2.8	1.4	5.7	138.9
5	중국	15,689	19,836	15,714	10.3	3.6	4.9	-20.8
12	한국	1,330	9,885	1,829	0.9	1.8	0.6	-81.5

자료: Global Trade Atlas

○ 2018년 폐 플라스틱 수입 급증으로 태국 정부는 2018년 11월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쿼터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재까지 입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임.
- 2020년 1월 1일 태국 정부는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플라스틱 및 전자 폐기물 분과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2020년 1월 29일 개최된 회의를 통해 2021년부터 폐 플라스틱 및 폐 전자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으나 입법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
- 위원회는 폐 플라스틱과 폐 전자제품 수입 할당량(쿼터)을 검토하고 현 수출입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 태국 산업부 산하 산업작업국 국장은 태국 현지언론 마티촌(Matichon)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1월 현재 폐 플라스틱 관련 22만 톤의 쿼터(Quota)가 미사용 중이며, 현 쿼터는 2020년 9월 일괄 종료될 예정이라고 전함.

□ 시사점

○ 태국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로드맵(2018~2030)'을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7가지 종류의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를 유도하고 있음.

태국 플라스틱 폐기물 로드맵에 따른 주요 플라스틱 규제 시행 현황

규제	시행일	상태	강제성 여부	담당 기관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건강 및 뷰티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금지	2020.1.1.	시행 중	강제	태국 식약청(FDA)
소매상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배포 금지	2020.1.1.	시행 중	자율	오염통제국(PCD)
옥소(Oxo)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옥소물질 제조, 수입, 유통 금지*	N.A	방안 수립중	N.A	오염통제국(PCD)

주: KOTRA 방콕 무역관의 산업작업국(DIW) 문의 결과 오염통제국(PCD)으로부터 시행 지침을 전달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 태국인들의 환경 인식 개선, 그린피스(Green Peace),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 단체 및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 순환 경제를 추구하는 태국 정부의 노력으로 장기적으로 태국의 플라스틱 규제가 안착될 것으로 기대됨.

○ 폐 플라스틱 수출 기업, 미세 플라스틱 함유 뷰티 제품 수출 기업 등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들은 수입선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최신 법규, 논의 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히 입수하고 대응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함.

○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류, 부직포 소재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태국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해당 품목들의 대태국 시장 진출을 통해 발 빠른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Chanatta Thararos

자료: 방콕포스트, 산업작업국(DIW), 오염통제국(PCD), 태국 식약청(FDA), 현지언론(Bangkok Post, Matichon, Ch.7, Thai PBS, Thaipost, Positioning Mag, Prachachat, Thairath), Central Group, Reuters, Global Trade Atlas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7. 2020년 베트남 통상정책 및 전망

- 2019년 교역규모 5,000억 달러 돌파, 싱가포르·태국에 이어 아세안 3위 -

- 실리주의적인 통상정책과 함께 FTA 참여·외국인 투자유치로 지속 교역 확대 중 -

□ 2020년 베트남 주요통상 이슈

○ 2019년 베트남 총 교역액 5,000억 달러 돌파

- 베트남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642억 달러, 수입액은 2,531억 달러를 달성 했으며, 무역 수지는 111억 1,845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각각 613억 달러(미국), 414억 달러(중국), 204억 달러(일본), 197억 달러(한국) 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인 쩐뚜언아잉(Trần Tuấn Anh)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2020.1.26)에서 "베트남은 다자간 FTA 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2019년 5,000억 달러 교역액 목표가 달성 가능했다. 특히 CPTPP 발효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증가했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27~29% 가까이나 성장했다." 고 언급함.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USD 백만, 증가율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출	132,033 (15.3)	150,217 (13.8)	162,017 (7.9)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264,289 (8.4)
수입	132,033 (16.0)	147,849 (12.0)	165,570 (12.0)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253,071 (6.8)
무역수지	0	2,368	-3,554	1,777	2,916	6,795	11,118

자료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 CPTPP 정식 발효로 인한 기대

- 2019년 1월 14일자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 정식 발효되었음. 현재 CPTPP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베트남은 CPTPP와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해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의 법령을 개정 중

- 베트남에서는 CPTPP 발효로 인하여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군(전자제품, 의류 및 봉제 제품 등)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대 멕시코, 캐나다, 페루의 수출액은 각각 28.2억 달러, 39.1억 달러, 34.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CPTPP 발효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26.2%, 29.8%, 36.4% 증가했음.
- 주요 상위 수출 품목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휴대폰(멕시코), 의류 및 섬유· 휴대폰 및 부분품(캐나다), 휴대폰 및 부분품·신발류(페루)임.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액 동향

(단위: USD)

	멕시코	캐나다	페루
2017년	2,339,218,456	2,715,673,547	330,748,160
2018년	2,239,575,586	3,013,846,051	250,166,286
2019년	2,827,598,867	3,912,420,559	341,327,180

* 멕시코, 캐나다, 페루는 기 FTA 체결이 되지 않은 CPTPP 참여국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 2020년 EU-베트남 FTA 발효 예상

- 베트남은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하고 현재 현지 법률과의 합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 있음.

* EU-베트남 FTA 체결 경과 : EU-베트남 FTA 협상개시('12.06) → 양국 12차 협상완료('15.03) → EU-베트남 FTA 타결('15.0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완료('18.0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완료('19.06)

- 베트남은 EVFTA 승인 및 발효를 위해 3가지 절차를 거침. ①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② 정부는 검토 후 당 서기장에게 제출, ③ 당 서기장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음. 현재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의 조율단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산업무역부 발표(2019.11.16, EVFTA 포럼)에 따르면,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2020년도 베트남의 대 EU 수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음.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EU-베트남 FTA 주요 양허 내용

EU 측	베트남 측
-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양허 품목 9,394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99%에 관세 철폐 예정 - FTA 발효 즉시 양허 품목의 83.69%가 무관세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16.31%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입관세 철폐 예정	- EU산 제품 9,56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양허하였으며, 양허품목에 대해 FTA 협정 발효 직후 유럽산 제품의 양허 품목 약 48.53%에 관세를 철폐하고, 51.47%는 10년 내 철폐 예정

자료: EU-베트남 FTA협정문,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ㅇ 아세안-홍콩 FTA(AHKFTA) 정식 발효

- 2019년 6월 11일자로 AHKFTA가 싱가포르, 타일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회원국 간 정식 발효됨.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10 년 이내에 홍콩과 거래되는 제품의 85 %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10 %의 관세 인하 예정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10년 이내에 제품의 7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14년 이내에 10% 추가 관세 인하 예정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10.1 발효) AKFTA(한국,'07.6 발효) AJCEP(일본,'08.12 발효) ACFTA(중국,'05.7 발효) AHKFTA(홍콩,'19.6 발효)	-	RCEP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15.12 출범) VJEPA(일본,'09.10 발효) VCFTA(칠레,'14.1 발효) VKFTA(한국,'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16.10 발효)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19.1 발효)	EVFTA (유럽연합, '15.8 타결)	VEFTAFTA (유럽자유무역연합)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 **베트남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및 기조**

○2019년 6월 발표된 총리지시문(16/CT-TTg) '2020년 국가 예산 예상 및 경제 - 사회 개발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아세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베트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 내년도 베트남은 ▵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202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2020-2021년) ▵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 활동 센터(AAPTC)의 의장국 수행(2020년) 등의 역할 수행이 예정되어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총리지시문(16/CT-TTg) '2020년 국가 예산 예상 및 경제 - 사회 개발 계획'
2020 년 사회 경제 발전의 방향과 과제 **中...**

중요한 파트너,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다져나감. 베트남은 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새로운 국제적 대외관계를 조성해 나감. 2020년도 아세안 의장직에서 베트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WTO·APEC·ASEM·G20 및 메콩 지역의 근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 2020년~2021년 기간 동안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시장 확장·자본 확대·고급 기술 및 관광 유치를 위한 지역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경제외교를 추진함. 세계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장려함.

자료: 16/CT-TTg

○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정책 동향

- 2020년 1월 말 기준,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총 7건으로 반덤핑 2건, 세이프가드 5건(자료원: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이 5건, 화학이 2건임. 현재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이 도포된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1건은 조사 중이나 잠정 덤핑관세가 적용 예정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코팅 강철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반덤핑	'18.10.15	'19.10.24	철강 및 금속	- '18.10.15: 한국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 '19.6.18: 한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19.6.25: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 '19.10.24: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 '19.10.24: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및 부과
(아연) 도금강판 (Coated steel sheets)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반덤핑	'16.3.3	'17.3.30	철강 및 금속	- '16.3.3: 한국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6.5.23: 예비판정일 연기 - '16.9.1: 반덤핑 예비판정 . '16.9.17-'17.1.15 : 잠정 반덤핑관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1 7212.30.12 7212.30.13 7212.30.14 7212.30.19 7212.50.13 7212.50.14 7212.50.19 7212.50.23 7212.50.24 7212.50.29 7212.50.93 7212.50.94 7212.50.99 7212.60.11 7212.60.12 7212.60.19 7212.60.91 7212.60.99 7225.92.90 7226.99.11 7226.99.91					세 부과 - '17.3.30 : 반덤핑 최종판정 - '17.4.14-'22.4.13 : 반덤핑 조치발효
선 및 압연 제품 (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7213.91.90 7217.10.10 7217.10.29 7229.90.99 9839.10.00 (지정 HS 코드)	세이프가드	'18.7.29	'19.5.13	철강 및 금속	- '18.7.26: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9.5.13: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9.5.28: 세이프가드 조치발효 '
DAP·MAP 비료 (Di-ammonium Phosphate Fertilizers)	3105.10.90 3105.10.20 3105.20.0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세이프가드	'17.5.12	'18.3.2	화학	- '17.3.31: 비나켐의 자회사가 세이프가드 제소 - '17.5.12: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7.8.4: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 '17.11.10: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정('18.1.12 조사종료) - '18.3.2: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8.3.7: 세이프가드 조치발효
착색(아연) 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heet and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세이프가드	'16.7.6	'17.5.31	철강 및 금속	- '17.5.31: 세이프가드 조치 최종 결정 · '17.6.15-'20.6.14까지 3년간 할당관세 부과 · 할당관세 적용 : 할당 내 0%, 할당 외 19%의 관세 부과

strip)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7225.99.90 7226.99.19 7226.99.99					· 한국:1년차(34,451톤), 2년차(37,897톤), 3년차(41,686톤)
반가공 합금 철강재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지정 HS 코드)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철강 및 금속	- '15.12.25. : 조사개시 - '16.3.7 : 잠정조치 실시 결정 - '16.7.18.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6.8.2.부터 철강괴에 23.3%, 철강봉에 15.4% 관세부과 후 단계적으로 인하
글루탐산 나트륨 (Monosodium glutamate)	2922.42.21	세이프가드	'15.9.1	'16.3.10	화학	- '15.9.1 : MSG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6.3.10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 '16.3.25-'20.3.24 :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자료: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중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증 강화 추세

- 미중 통상분쟁으로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현지 언론(TuoiTre)에 따르면 2019년 말, 호치민 세관은 미국 우회 수출예정이던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중국산 인터넷 케이블을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 중국산 알루미늄 및 합금제품의 우회 수출이 적발되어 베트남 정부는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은 성명서(2019.6.9)를 발표하고, 중국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및 위반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100%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베트남 빙즈엉 세관에서 검열중인 중국산 자전거



자료: Tuoitre.vn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출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 중

- 베트남은 1986년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고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CPTPP 발효에 이어,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 EU와 FTA를 체결하였음. 의류 및 농수산물 관련 업계에서는 EU 시장 진출 기회를 계기로 베트남의 수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음.
- 베트남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비롯해 높은 정치적 안정성, 개방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동남아 및 인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다만,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 과밀로 인해 생산부지 공급난,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은 제조업 관련 투자진출 기업들에는 리스크로 작용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EU-베트남 FTA협정문,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 Tuoitre.v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